

'홀로서기' 청년들, 지원금 왜 안찾아갔나

자립준비청년 지원 '디딤씨앗 통장'...미수령 적립금 1814억 "지자체 명의 통장, 금융실명제 위반...출금 절차 개선해야"

'홀로서기' 청년의 사회 진출 초기 비용으로 쓰일 정부 지원금 1800억여 원이 만기 이후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세상을 떠난 광주 지역 보육원 출신 자립 준비 청년들 모두 지원금을 찾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사용 방식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

울 강서병)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디딤씨앗 통장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1814억 원에 이른다. 디딤씨앗 통장사업은 보호대상아동 또는 기초생활가정 내 아동이 사회 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해당 통장에 매달 일정 금액을 입금하는 아동에게는 정부가 입금 금액 2배(월 최대 10만 원)를

지원한다. 만기인 만 18세부터는 학자금 지원, 주거비용 마련 등을 위해 모아둔 금액을 찾아갈 수 있다. 만 24세 이상이면 아무런 조건 없이 출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국 대상자 4만 5217명이 적립 금액 1813억 9500만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해당 금액 중 정부 지원 규모는 683억 66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달 광주에서 잇따라 세

상을 떠난 자립 지원 청년 A(18)씨와 B(19·여)씨도 디딤씨앗 통장에 잔액이 그대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9년 3월부터 통장을 이용하기 시작, 정부지원금을 비롯해 1165만 5311원을 모았으나 출금하지 않았다. B씨도 2011년부터 11년 가량 560만 7000원을 모았지만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한 의원은 각종 증명 서류 지참 등 복잡한 절차 탓에 출금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장이 지자체 명의로 만들어지고 있어 금융실명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재환기자



보성경찰, 자율방범대 교통사고예방 교육·홍보 전개

보성경찰서(서장 임진영)는 전남지역 교통사망사고 급증으로 인한 전남경찰청 추진 시책인 '교통사고 사망자 확 줄이기' 예방대책을 소개하고 이륜차, 보행자, 농기계, 음주운전금지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보성=김덕순기자



완도해경, 사랑의 단체인혈로 이웃사랑 실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최근 '제69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 사회봉사 활동으로, 경찰서 청사와 전용부두에서 헌혈 버스를 이용한 단체 헌혈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장흥소방, 제4회 전남 구급지도관 강의연찬 경연대회 1위 달성

장흥소방서는 20일 실시한 제4회 전남 구급지도관 강의연찬 경연대회에서 1개 팀이 참가하여 중증환자 항공이송(Heli-EMS) 주제로 1차 서면평가 이후 2차 상위 6개팀이 실시하는 경연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장흥=김도영기자



광양소방서 119생활안전대, 차량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 119생활안전대는 차량사고 및 차량 내 인명사고에 대비해 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양=김현근기자



담양소방, 다양한 119신고서비스 홍보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재난 상황 시 문자나 영상통화,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무안소방, 일로음 기사 화재 신속 진압

무안소방서는(서장 박의승)는 지난 20일 일로음 자갈리 기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신속하게 진압했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가을 수확철, 야생진드기 감염 주의보...“피부 노출 최소화해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9~11월 야생진드기 활동 왕성

전남도가 가을철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를 촉구했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은 농작물 수확철을 맞아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유발하는 야생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 달라고 25일 밝혔다. 특히 9월부터 11월은 야생진드기 유충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로 가을 행락철을 맞아 등산이나 농작물 수확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해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전체 환자 발생률을 살펴보면 9월(81%·4782명)과 11월(46%·79명)에 집중됐었다. 사망자 또한 9월과 11월에 각각 64%(7명), 42%(11명) 발생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전남지역 쯔쯔가무시증 발생은 221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환자의 30%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3명이 숨지기도 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렸을 때 검은 딱지가 관찰되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1~3주 잠복기가 지나면 발열·오한·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역시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린 후 4~15일 이내 고열과 구토, 설사, 오심 등 증상이 나타나고 치명률도 높은 감염병이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은 매개체 감염병에 취약한 지역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매개체 발생·병원체 감염



률 감시와 방제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순천, 보성 등 주요 지역에 종합감시망을 구축해 매개체 발생·생태·병원체에 대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철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 감

염병조사1과장은 "9월에서 11월은 진드기 유충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로 야외 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과 피부 노출 최소화, 귀가 즉시 샤워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이슬기자



5년 새 급증한 전동 킥보드 사고

25일 시민이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에 의한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최근 5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오후 서울 강남 인근에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한남노로 훼손된 기록물 응급복구

현장지원팀 9명 파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제11호 태풍 한남노로 훼손된 기록물 600여 점을 긴급 복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록물들은 경북 포항시 행정기관의 보존서고가 한남노로 인해 침수되면서 물에 젖어 훼손된 것들이다. 물에 젖은 기록물은 48시간 이상 방치하면 곰팡이가 피고 부식돼 전문 복원작업을 거쳐야 하며 자칫 원형 복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 빠른 응급복구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포항시에 기록물 피해 상황 접수 즉시 응급복구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응급복구키트 3세트와 침수 기록물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때 필요한 이관상자 100개를 보냈다. 이 중 키트는 응급복구에 필요한 작업자 보호용 7종, 건·습식 클리닝용 10종, 건조·보관용 6종, 피해 상황 기록용 2종 등 물품 25종과 응급복구 지침, 관련 QR코드로 구성돼 있다. 또 지난 13~15일 사용된 기록물 복원·관리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꾸린 '현장지원팀'을 급파했다. 이들은 침수된 기록물 320권과 지적도 300매 등을 응급 복구하고 보존서고 복구를 위한 자문을 실시했다. 서선욱기자

피의자에 휴대전화·약물 전달한 변호사, 집행유예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에게 교정 시설 반입 금지물품을 건넨 변호사가 범행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경기도 내 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B씨에게 여자 친구와 통화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가 없이 교정시설 반입 금지물품인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와 외부인과 통화시켜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날 B씨가 평소 사용하던 약물을 유치장에 넣어달라는 아내 C씨의 부탁을 받고 약물을 넣은 주사기 2개를 형견에 감싸 B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저지른 위계공

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변호사에게 유치장 내 약물 반입 등을 부탁한 C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뉴시스